

'서동설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복식 고증

A Study on the Historical Research of the Leading Costume in "Seodong Tale"

저자 (Authors)	김문자 Moon Ja Kim
출처 (Source)	복식 61(7) , 2011.08, 135-151(17 pag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1(7) , 2011.08, 135-151(1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복식학회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75792
APA Style	김문자 (2011). '서동설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복식 고증. 복식, 61(7), 135-15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3 11:0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서동설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복식 고증

김문자

수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Historical Research of the Leading Costume in 'Seodong Tale'

Moon-Ja K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won University

(투고일: 2011. 6. 15, 심사(수정)일: 2011. 7. 22, 게재확정일: 2011. 8. 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costume styles during the *Silla*(新羅), and *Paekje* dynasty[百濟] in 'Seodong tale'. In those days, costume form, color, pattern, and ornament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presenting the differences in social statu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reviewing and researching the symbolic meaning and classifying the types of the style of the Costume in 'Seodong tale' through the antique records and tombs bequests and expressing the clothing of the appearance people in the picture. This study is about the costume styles representing the differences in social status during the *Silla* and *Paekje* dynasty in 'Seodong tale'. Sedong wore 'Heug Geon(黑巾)' and 'Yu(襦)', 'Ko(袴)'. The king of *Silla*, *Jinpyung* wore Tree and Antler-typed Diadem and 'Po(袍)' with 'GwaDae(袴帶)' and Earrings, Necklaces, Rings. The servant of *Paekje* wore 'Eunhwakwansik[silver crown]' and 'Jangyu(長襦)' bound the silver belt and 'Ko'. *Silla* Princess of the court, *Seonhwa* wore Feathered Trim with Conical hat, and 'Yu' bound the belt and 'SangdongChima' and Earrings, Necklaces, Bracelets, Rings. *Sedong's* mother's hair style was 'Eonjeunmeori' and wore 'Yu' and 'Ko'. The queen of *Paekje*, *Seonhwa* wore 'Keumhwasiik[Gold crown]', and 'Po' bound the belt and Earrings, Necklaces, Bracelets.

Key words: feathered trim(조우식), gold crown(금화식), princess seonwha(선화공주), seodong(서동), silver crown(은화식), tree and antler-typed diadem(수목녹각형입식관)

I. 서론

‘서동설화’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구비전승 되다가 일연스님에 의해 『삼국유사』에 기록되었다. 1322년 사이에 초간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1394년 중간되면서 개각(改刻)되었고 1512년(중종 7년) 간행된 정덕본은 80% 이상 보각(補刻)하여 간행하였는데, 현재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전하는 『삼국유사』의 편찬 과정을 살펴볼 때에 신라시대에 구비 전승되었던 노래나 이야기의 모습이 기록화 되면서 많은 변이가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¹⁾

‘서동설화’는 『삼국유사(三國遺事)』권2 무왕조(武王條)에 나오는 기록이다.²⁾

‘무왕’조의 설화는 민간에 유포된 민담에 일부 실제 인물들이 설정되어 허구와 사실의 경계선이 모호하게 되었다. 설화의 배경이나 환경이라는 점에서는 당시의 나·제간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지만 사실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³⁾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동설화’ 자체의 역사성이나 진실 그 자체는 역사학쪽의 후속연구에 맡기고 ‘서동설화’ 내용에 충실하게 등장인물들의 복식을 고증하려고 한다.

선행연구⁴⁾에서는 ‘서동설화’ 자체의 역사적 사실과 허구와의 상관 관계 등을 주로 고찰했으며 직접적으로 의상고증을 한 예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서동설화’에 대한 여성 국극 작품 중에 1950년대 춘앵 여성 국극단에 의해 공연되었던 〈서동과 공주〉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이는 대중역사극의 특성에 대한 것을 고찰한 것⁵⁾으로 복식 고증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

TV 드라마⁶⁾로는 ‘서동요’라는 이름으로 방영된 적이 있으나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드라마 의상 제작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목적은 ‘서동설화’에 표현된 주요 등장인물들의 계급이나 상황에 따른 복식 형태를 고증하여 앞으로의 많은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서 재창조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주로 당시의 고신라와 백제의 유물이

나 고기록들과 또한 참고자료로서 동시대인 고구려 고분벽화 등을 참고하여 시대별 계급에 따르는 등장인물들의 복식을 고증하여 직접 도판을 그려서 형태, 구성, 색 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은 6-7세기의 복식이니만큼 고증자료가 되는 고신라와 백제의 유물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동시대인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도 등을 참고하여 도판을 그릴 수밖에 없는 점이다. 또한 짧은 설화의 내용을 가지고 복식고증을 하려니까 설화 속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인물 등도 영화나 드라마 등의 복식고증을 하려면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우는 그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여 고증을 할 수 밖에 없는 점도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II. ‘서동설화’의 시대적 배경 및 등장인물 복식

1. ‘서동설화’의 줄거리 및 시대적 배경

‘서동설화’는 『삼국유사』무왕(武王)조에 실린 다음과 같은 설화이다.

제30대 무왕(武王)(540년)의 이름은 장(璋)이다. 그 어머니는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 못의 용과 관계하여 장을 낳았다. 아이 때 이름은 서동(襄童)이다. 재기(才器)와 도량(度量)이 커서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늘 마를 캐어 팔아서 생업을 삼았으므로 나랏사람들이 그 때문에 서동이라 이름했다.

서동이 노래로 신화공주를 얻다
그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공주 선화(善花)—혹은 선화(善化)라고도 쓴다—가 아름답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가서 마를 동네 아이들에게 먹이니, 아이들이 친해져 그를 따르게 되었다.

이에 그는 동요를 지어 여러 아이들을 피어서 그것을 부르게 했는데 그 노래는 이렇다.

신화공주님은
남 물리 얼려 두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동요가 서울에 퍼져서 대궐에까지 들리니 백관이 임금에게 극력 간하여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게 했다. 떠날 때 즈음 왕후는 순금 한 말을 노자로 주었다. 공주가 장차 귀양터에 이르러 하는데

서동은 도중에서 나와 절하면서 모시고 가겠다고 했다. 공주는 비록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으나 우연히 믿고 좋아했다. 이로 말미암아 서동을 따라갔으며 몰래 관계했다. 그런 후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았으며, 동요의 영계를 알았다. 함께 백제로 와서 모후(母后)가 준 금으로 생계를 도모하려 하니 서동은 크게 웃으면서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오?”

공주는 말했다.

“이것은 황금입니다. 한평생의 부를 이를 만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마를 파던 곳에 황금을 흠쳐 많았어 쌓아놓았소.”

공주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 말했다.

“그것은 천하의 진귀한 보배이니 당신이 지금 금이 있는 데를 알면 그 보물을 부모님이 계신 궁전으로 수송하는 것이 어찌겠습니까?”

서동은 말했다.

“좋소.”

이에 금을 모아 언덕처럼 많이 쌓아놓고, 용화산(龍華山) 사자사(師子寺)(541년)의 지명법사(知命法師)에게 금을 수송할 계획을 물으니 법사는 말했다.

“내가神通한 도의 힘으로 보낼 수 있으니 금을 가져오시오.”

공주는 편지를 써서 금과 함께 사자사 앞에 갖다 놓으니, 법사는神通한 도의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신라 고증으로 보내어 두었다. 진평왕은 그 신비로운 변화(542년)를 이상히 여겨 더욱 서동을 존경해서 늘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서동은 이로 말미암아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

미륵사를 짓다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용화산 밑의 큰 못가에 이르니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못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부인이 왕에게 말했다.

“이곳에 큰 절을 세워주십시오. 진실로 제 소원입니다.”

왕은 그것을 허락했다. 지명법사에게 가서 못을 메울 일을 물었더니 법사는神通한 도의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워서 평지로 만들었다. 이에 미륵삼존의 상을 모방해 만들고, 전(殿)과 탑과 낭무(廊)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彌勒寺)(543년)—「국사」에서는 왕흥사(王興寺)(544년)라 했다—라 했다. 진평왕은 각종 공인(工人)(545년)을 보내어 역사를 도와주었다. 그 절은 지금도 남아 있다.—「삼국사」에는 이분을 법왕(法王)의 아들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독녀(獨女)의 아들이라 했으니, 자세히 알 수 없다.)

즉, 이 설화는 백제의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 서동요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고 신라 진평왕의 인심을 얻어 백제의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대적 배경은 6-7세기경의 백제와 고신라이다.

2. ‘서동설화’ 주요 등장인물 복식

‘서동설화’의 주요 등장인물은 우선 주인공인 ‘서동’과 ‘선화공주’ 그리고 선화공주의 부왕인 ‘진평왕’, 모후인 왕후, 서동의 어머니, 고신라, 백제의 백관들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복식이 뚜렷하게 구별되고 새로운 고증 복식이 될 수 있는 남자복 3벌, 여자복 3벌 씩을 선택하여 고증하였다.

남자의 복식은 신라에 갔을 때의 서동의 평민복과 진평왕복, 그리고 백제의 백관복을 고증하였다. 여자복식으로는 신라에 있을 때의 선화공주복과 서동모의 백제 평상복, 백제로 와서 왕비가 되었을 때의 선화 왕비복을 고증하였다.

1) 서동복

(1) 설화의 기록

‘서동설화’에 등장하는 서동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늘 마를 캐어 팔아서 생업을 삼았으므로 나랏사람들이 그 때문에 서동이라 이름했다.”

“그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공주 선화(善花)—혹은 선화(善化)라고도 쓴다—가 아름답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가서 …(중략)…”

“서동은 도중에서 나와 절하면서 모시고 가겠다고 했다. …(중략)… 이로 말미암아 서동을 따라갔으며 몰래 관계했다. 그런 후에야 서동의 이름을 알았으며, …(중략)… 모후(母后)가 준 금으로 생계를 도모하려 하니 서동은 크게 웃으면서 물었다.”

“서동은 말했다”

이중에서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가서”에 등장하는 서동의 신라인으로의 평상복을 고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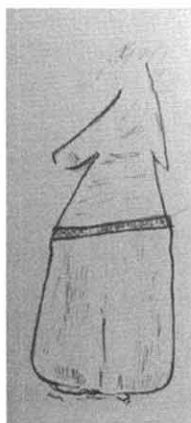
(2) 고증 자료

(가) 흑건

서동이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가서 …(중략)…”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당서』동이열전 신라조에 보면 “신라의 남자들이 머리털을 깎아 팔아서 흑건을 쓴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 덕흥리 고분벽화에 보이는 인물 <그림 1>⁸⁾이 착용한 것과 같은 흑건을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흑건, 유고
고구려 덕흥리 고분벽화
- 高句麗古墳壁畫, 도판
82



〈그림 2〉 유고연양
천전리 암각 인물상
- 한국복식의 역사,
p. 59.



〈그림 3〉 수목녹각형입식관
고신라 경주 천마총 출토

- <http://www.cha.go.kr/korea/heritage/>

(나) 유고, 화

의복은 『唐書』 동이전 신라조에 “남자는 ‘갈고’를 착용한다.”고 하였으며, 연양 천전리 암각 인물상 〈그림 2〉⁹⁾에 유고 복장을 한 인물이 보인다. 발에는 화(靴)를 신은 것으로 고증하였다.

2) 진평왕복

(1) 설화의 기록

‘서동설화’ 진평왕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그는 신라 진평왕의 …(중략)…”

“진평왕은 그 신비로운 변화를 이상히 여겨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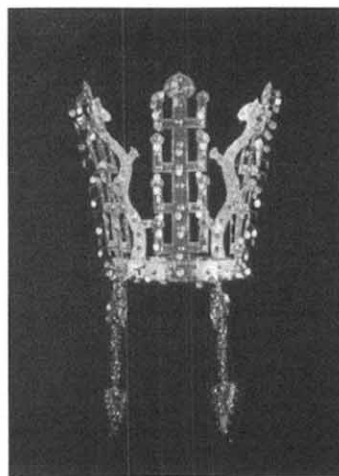
“진평왕은 각종 공인(工人)(545) 을 보내어 역사를 도와주었다.”

‘진평왕’은 고신라의 왕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나타내는 의례적인 경우에 착용하는 수목녹각형입식관과 포를 입고 허리에 과대를 늘이고 발에는 금동리를 신고, 귀고리, 목걸이등의 장신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고증하였다.

(2) 고증 자료

(가) 수목녹각형입식관

수목녹각형입식관의 유물로는 고신라 후기에 속하



〈그림 4〉 수목녹각형입식관
고신라 경주 금령총 출토

- *고분미술* Ⅱ, p. 65.

는 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천마총과 금령총 출토품을 들 수 있다. 고신라 천마총출토 금관(그림 3)¹⁰⁾은 4단의 山字겹침式立飾 3개와 녹각형입식 2개를 세운 전형적인 신라금관이다. 따로 후두부를 제외한 전체에 비취곡옥을 역시 금사로 매달고 있는데 곡옥은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게 하여 시각적으로나 중력면에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¹¹⁾ 수목형(山字겹침式)입식관에서의 山字式이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

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 까도 생각된다. 경주 금령총 출토 수목녹각형입식관<그림 4>¹²⁾은 4단의 山字겹침식 입식 3개를 세우고 후면의 양측에 녹각형입식 2개를 세운 것¹³⁾으로 금관으로 제작된 수목녹각형 입식관은 고신라에서 보다 정제되고 장식화되어 계급이 높은 층에서 착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⁴⁾

(나) 포

‘진평왕’이 착용한 포는 고신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왕의 복장으로 보이는 부분을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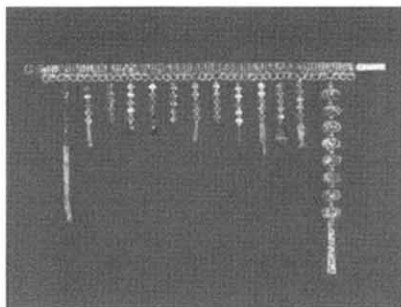
고구려 동명왕이라고 추정되는¹⁵⁾ 인물<그림 5>이 착용하고 있는 의복은 포의 형태로 보인다.



<그림 5> 포
고구려 안악3호분 벽화
- 고구려고분벽화, 도판 1

(다) 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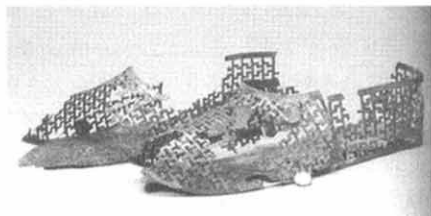
천마총 출토 과대<그림 6>¹⁶⁾는 고신라 후기의 것으로 가장 화려한 과대의 하나로 과대는 투조장식이 있는 44개의 판을 연결하였고, 주변에 9개의 구멍이 있어 가죽에 고정시키게 되어있으며 양끝에 교구와 대선금구를 달았다. 과대에서 늘어뜨린 장식은 13줄로 타원형 금판과 사각형 금판으로 연결하였다.¹⁷⁾



<그림 6> 금제 과대
고신라 천마총 출토
- 천마총발굴조사보고서, 도판 12

(라) 금동리(金銅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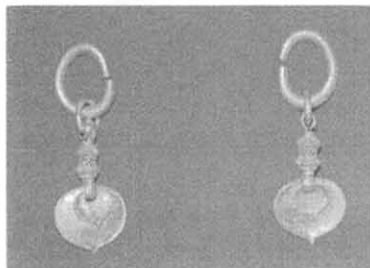
경주 황남대총 남분 출토 금동리<그림 7>는 부식으로 파손이 심하나 식리의 표면은 삼입부를 경계로 하여 앞뒤에 2매의 금동판을 붙여 만들고 전면에 T자형을 투조한 후 원형 영락을 매달았다. 저면(底面)은 1매의 금동판이고, 전면에 원형영락을 촘촘히 달았으며 식리의 내면에는 마심(麻心)에 주색견포(朱色絹布)를 싼 섬유가 대어져 있는데¹⁸⁾이는 실제로 착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림 7> 금동리
고신라 황남대총 남분 출토
- 皇南大塚Ⅲ(南墳)發掘調査報告書, 도판 21-2

(마) 장신구

왕이 착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장신구는 금제세환식 귀고리와 목걸이, 반지 등이 있었다. 남자무덤으로 생각되는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팔찌가 출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왕의 경우에도 소매가 길어 팔에 찬 팔찌가 밖으로 보이지 않아서 착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귀고리, 목걸이, 반지만 착용한 것으로 고증하였다.



〈그림 8〉 세환식 귀고리
고신라 천마총 출토
- 천마총발굴조사보고서,
도판 11-1



〈그림 9〉 목걸이
고신라 황남대총
남분 출토
- 皇南大塚 II(南墳)
發掘調査報告書,
도판 16



〈그림 10〉 반지
고신라 황남대총 남분
출토
- 皇南大塚 II(南墳)
發掘調査報告書, 도판 19-1

천마총 출토 금제 세환식 귀고리¹⁹⁾(그림 8)는 피장자가 착용한 것으로 금제 주환(主環)에 소환(小環)을 꿰고 장고형(長鼓形) 중간식을 달고 아래에 좌우측에 심엽(心葉)을 가착한 심엽형장식을 달은 것이다.²⁰⁾

황남대총 남분 출토 금제 목걸이(그림 9)는 하단에 달린 금제 곡옥 1개를 중심으로 좌우에 금제 중공옥(中空玉) 3개씩을 배치하고 그 사이를 사슬모양으로 끈 금줄로 연결하였다. 좌우 양연의 끝에는 각 1개씩의 소금환이 달려 서로 물려서 매여져 있다.²¹⁾

황남대총 남분 출토 금반지(그림 10)는 능형부분에 누금세공으로 사관화형좌(四瓣花形座)를 시문하고 그 안에 중앙과 화관(花瓣)에 청색유리주를 감입(嵌入)하였다²²⁾

3) 백제 백관복

(1) 설화의 기록

백관복은 설화속에는 고신라의 "백관이 임금에게 구력 간하여 ... (중략)..." 에 나오나 본 연구에서는 그 보다는 서동이 무왕이 되었다고 함으로 당연히 백제의 백관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백제의 백관복을 고증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고구려와 고신라의 관복은 유물로 보아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을 것

으로 보이나 백제는 6-7세기에 들어와 독특한 양식의 은제관식을 만들어 두 나라들과 차별화를 이루었다고 생각되어 백제의 백관복을 고증하려고 한다.

백제의 관복은 변형모에 은제관식을 삼식하고, 좌우에 은대를 매고 고를 착용한 모습으로 고증하였다.

(2) 고증 자료

삼국사기 잡지(雜誌)의 색복조(色服條)²³⁾를 보면 백제에서는 복색뿐만 아니라 관식까지도 관등 또는 신분에 따라 형태가 다른 것을 착용하도록 하여 관식의 착용이 중요한 제도로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제 관식에 대해 언급된 중국사서는 주로 7세기 이후에 쓰인 것들인데 그중 당건국 이후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쓰여진 『周書』를 비롯하여 『北史』, 『隋書』, 『舊唐書』, 『新唐書』등이 있다. 즉, 『周書』에는 '飾銀華'²⁴⁾, 『舊唐書』에는 '金花爲飾 ... (중략) ... 銀花飾冠'²⁵⁾ 등에 관식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색복조에는 이같은 관식의 사용이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제정 실행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그런데 삼국사기 고이왕(古爾王) 27년에서 28년(260-261년)에 일종의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의 관등제정(官等制定), 관

직임명(官職任命)²⁶과 함께 의관제(衣冠制)의 제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적고 있다.²⁷ 기록이나 유물들로 미루어 관식의 제정은 고이 왕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그보다 후대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²⁸

한편, 백제인 들의 복식은 볼 수 있는 것으로 『양직공도(梁職貢圖)』²⁹를 들 수 있는데, 양과 백제와의 교류관계는 백제 무령왕과 성왕 대에 이루어졌으므로 양직공도에 묘사된 백제사신은 6세기 전반기의 복식을 반영하고 있다.³⁰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³¹ 그림 뒤에 …以帽爲冠…이라 하여 ‘帽로서 冠을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모습은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변형모 형태의 모자위에 다른 태 등을 첨부하여 관식을 세운 것으로, 일반적인 삼국시대 대륜식입식관(: 일명 금관류)과는 다른 모자와 관식을 함께 첨부하여 만든 백제 특유의 양식으로 특히 帽로서 冠을 삼았다고 설명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가) 은제 관식

부여 능산리 36호분 동편 출토 은제 관식(그림 11)은 남성용으로, 동, 서편의 간부(幹部)는 같은 형

상으로 만들었는데, 횡단면으로 보면 세로로 중심선을 따라 일정한 각도로 V형태로 접어 양쪽으로 대칭상태의 형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³²

착용 방법은 우선 변형모 앞부분에 경우 꺾어진 관식을 단순히 변형모부 위의 재봉 부위에 맞추어 겹에서 실 등으로 꿰매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나 대부분은 백제 변형모(그림 12) 앞의 장방형 판이 붙어 있는 경우 관식의 꺾인 부위를 삼식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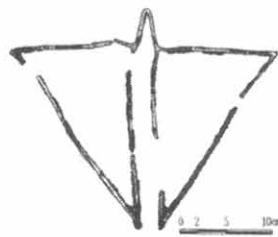
그런데 삼각형 형태의 철제 모자심의 출현으로 좀더 색다른 방법으로 관식의 착용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즉 부여 능산리 36호분 동편 출토 철제 삼각형 모자심(그림 13)이 출토 되었는데, 두 개의 이등변 삼각형을 연결하여 제작한 것이다. 서로 연결한 형태는 역삼각형을 띠고 있으며 두 삼각형을 이은 간격은 2.1cm 정도로서 이 틈이 중앙부를 형성하고 있어 이 부위에 관식을 꽂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동, 서편 피장자의 철제심 중앙부에 관식이 곧게 놓여 있었음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한 어느 부위에나 직물류로 덮여 있거나 실로 엮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³³



〈그림 11〉 은제 관식
부여 능산리 36호분 동편 출토
- *고분미술 1*, p. 247.



〈그림 12〉 백제 변형모
부여 능산리 36호분 동편 출토
- *국립부여박물관*, p.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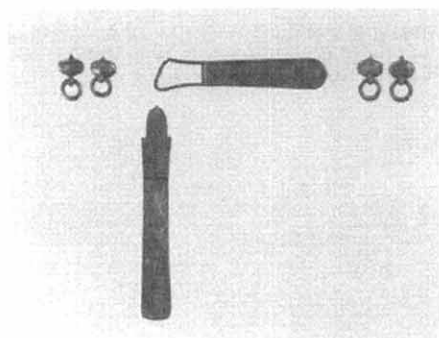
〈그림 13〉 철제 모자심
부여 능산리 36호분 동편 출토
- *백제문화*, 27, p. 159.



〈그림 14〉
백제국사도
양직공도
- 한국복식문화사,
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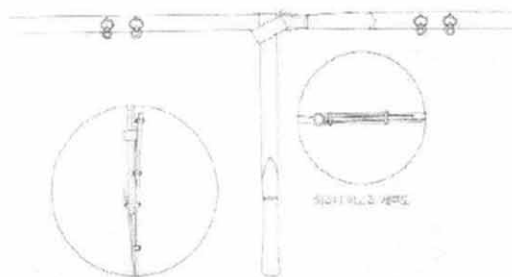


〈그림 15〉
백제국사도
왕회도
- <http://blog.naver.com/>



은제 대금구 복원도 (Silver Pin Reconstruction)
부여 능산리 36호분 동편 출토

〈그림 16〉 은제 대금구
백제 부여 능산리 36호분 동편 출토
- 백제인과 복식, p. 125.



하리파우미계 추정 복원도 (추정 복원도)

〈그림 17〉 은제 대금구 복원도
- 백제인과 복식, p. 127.

즉 철제 모자심이 은제 관식과 함께 같은 부위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변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의례용으로 좀 높게 세우는 장식적인 효과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³⁴⁾ 그런데 이 경우에도 모자심 중앙에 은제 관식을 삽입하여 실 등으로 연결한 다음, 변형모에 부착되어

있는 장방형판에 이것을 삽입시켜 착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때도 수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변형모의 앞 사면을 따라 비스듬히 착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8〉은제 조우식
고신라 황남대총 북분 출토
- 皇南大塚
(北墳)發掘調査報告書, 도면 12



〈그림 19〉유상
고구려 수산리고분 벽화
- 한국미술전집 4, p. 29.

(나) 장유, 고, 화

백관 공복의 색은 우선 3세기 고이왕대에 자(紫), 비(緋), 청(靑)색으로 정해져 사신도에 나타난 6세기 대에도 지속되다가 『구당서』편찬기인 중국 당대에 해당하는 7세기 대에 이르러 비(緋)색으로 단순화되고 서민들과 차등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⁵⁾

『양직공도(梁職貢圖)』의 백제국사도(그림 14)에서 이같은 백관 공복을 볼 수 있는데 밑단에 이색 선을 두른 황색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보통의 유의 길이보다는 길고 포의 길이보다는 짧은 청색 장유를 입고 있었으며 발에는 화를 신고 있다. 『왕회도』의 백제국사도(그림 15)³⁶⁾는 녹색 장유에 통 넓은 황색 고를 입고 화를 신고 있다.

백제 백관복으로는 비색 장유에 황색 고, 화를 착용한 것으로 고증하였다.

(다) 과대

백관 공복의 대(帶)의 제도는 『周書』를 비롯하여 『北史』, 『隋書』에 관위에 따라 자대, 조대(條帶), 적대, 청대, 백대를 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양직공도는 청대, 왕회도는 황대를 매고 있어 사서에 나오는 청복에 황대를 한다는 사실에 더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³⁷⁾

그런데 은화관식이 출토된 능산리 고분에서는 역심엽형 과관 밑에 원환을 붙인 형식의 은제 대금구와 고구, 대선금구(그림 16, 17)가 출토되어 전술한

사신들이 맨 포백대와는 다른 과대류를 맨 것으로 추정된다. 무령왕릉 출토 과대와 달리 요패가 없이 과대만을 착용했던 것 같다.³⁸⁾

따라서 당시 백제 백관복은 장유 위에 과대를 맨 것으로 고증하였다.

4) 선화공주복

(1) 설화의 기록

『서동설화』에서 선화공주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서동이 노래로 선화공주를 얻다”
“그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공주 선화(善花)—혹은 선화(善化)라고도 쓴다”
“선화공주님은...”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게 했다...”
“공주가 장차 귀양터에 이르러 하는데...”
“공주는 비록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공주는 말했다.”
“공주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 말했다.”

선화공주의 고신라에서의 공주시절복은 머리에는 여자의 전유물인 중심판만을 삼식한 조우관을 착용한 것으로 고증하였으며 의복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귀부인들의 복식을 참고로 하여 색동치마에 부선(副襖)과 유문선(有文襖)을 두른 유를 착용하였으며, 귀고리,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의 장신구를 착용했던 것으로 고증하였다.

(2) 고증 자료

(가) 조우관

고신라 황남대총 북분 출토 은제 조우식<그림 17>은 한 장의 은판을 오려서 만들었고, 중심선을 안으로 꺾어 접어 수직 돌출선을 나타냈다. 이 선의 좌우로 안상문이 보인다.³⁹⁾ 이같은 중심판만을 삽식하는 조우식은 그 양식의 간편함으로 여자들에게 애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⁰⁾

(나) 유상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귀부인<그림 19>의 색동치마와 귀부인들에게만 보이는 부선과 유문선을 두른 유⁴¹⁾를 착용한 것으로 고증하였다.

(다) 장신구

6세기 4/3분기의 빠른 단계 정도로 생각되는⁴²⁾ 경주 보문동 부부총 출토 귀고리<그림 20>는 몸체가 되는 커다랗고 둥근 고리에 타원형의 중간 고리가

연결되었으며, 그 아래에는 나뭇잎 모양의 화려한 장식들이 매달려 있다. 커다란 둥근 고리에는 거북등무늬와 같이 육각형으로 나누어 그 안에 4엽 혹은 3엽의 꽃을 표현하였는데, 꽃 하나하나에 금실과 금 알갱이로 장식한 누금세공법(鑲金細工法)을 이용하는 세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밑 부분에는 나뭇잎 모양의 작은 장식들을 금실을 꼬아서 달고 장식 끝에 커다란 하트모양을 달았다.⁴³⁾

천마총 출토 경홍식<그림 21>은 제일위에 짙은 청색의 유리옥 7-10개가 이어지고 그 밑에 은제중공옥 금제중공옥, 다시 은제중공옥이 각 3개씩 차례로 이어지고 그 끝에 방주형금구(方柱形金具)가 1개 있는데 이와 같은 순서로 연결되는 1구가 양측에서 5구 반복되어 제일 밑에는 다시 청색 유리옥을 늘인 다음 하단중심부와 양측 중간위치에 작은 곡옥 1개를 매어 단 대형의 경식이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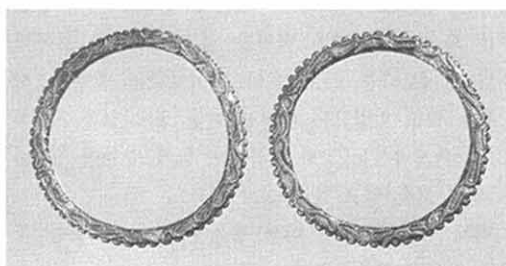
전형적인 6세기형 팔찌로⁴⁵⁾ 경주 노서동 215번지 출토 팔찌<그림 22>는 납작한 단면 바깥쪽에 각각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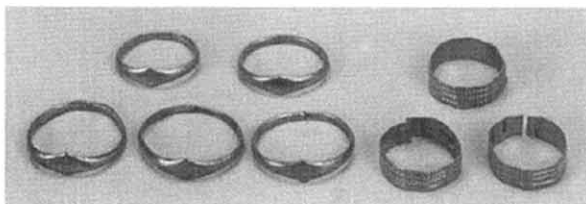
<그림 20> 태환식 귀고리
고신라 경주 보문리 부부총 출토
- <http://www.cha.go.kr>



<그림 21> 경홍식
고신라 천마총 출토
- <http://www.cha.go.kr>



<그림 22> 용문환식 팔찌
고신라 경주 노서동 215번지 출토
- <http://www.cha.go.kr>



<그림 23> 반지
고신라 황남대총 북분 출토
- <http://www.cha.go.kr>

개씩의 돌기를 내어 하나하나에 옥을 상감하였다. 이 돌기 좌우에는 4마리 용이 입을 벌려, 서로 다른 용의 꼬리를 물려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새겼다. 몸에는 비늘을 세밀하게 조각하였고 눈은 음각하였다.⁴⁶⁾

황남대총 북분 출토 반지<그림 23>는 모두 19개가 널(관)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가운데 오른쪽에 5개 왼쪽에 6개는 손에 긴 채로 발견되었다. 두 가지 문양이 보이는데 하나는 가운데가 마름모꼴로 된 것이고, 다른 것은 중앙에 격자문을 새겨 넣은 것⁴⁷⁾이다.

5) 서동모 복식

(1) 설화의 기록

'서동설화'에서 서동모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제30대 무왕(武王)(540년)의 이름은 장(璋)이다. 그 어머니는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 못의 용과 관계하여 장을 낳았다.”

여기에서 서동모는 백제의 서민녀복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머리는 엷은머리를 하고, 당시 서민녀들의 평상시 복장인 간단한 형태의 유고복장과 발에는 짚신을 신은 것으로 고증하였다.

(2) 고증 자료



<그림 24> 유고 고구려 각저총 고분벽화
- 高句麗古墳壁畫, 도판 204



<그림 25> 짚신 백제 부여 궁남지 출토
- 백제인과 복식, p. 94.

백제의 서민녀복도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서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도<그림 24>를 참고로 하였으며, 백제에서는 『복사』에 “출가한 여인은 발모를 모아 반(盤)을 지었다”고 설명하고 있어⁴⁸⁾ 서동모의 머리도 엷은머리 형태를 하고, 선을 두른 유와 고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고증하였다.

7세기 전반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부여 궁남지 출토 짚신<그림 25>은 농사활동에 종사하는 계층의 사용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⁴⁹⁾ 서동모도 짚신을 착용한 것으로 고증하였다.

6) 선화 왕비복

(1) 설화의 기록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에 가려고 ... (중략)...”

여기서 '부인'은 선화왕비를 말하며 백제의 왕비복을 착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왕비용 관식을 양 옆에 세운 관모를 쓰고 치마 위에 소매통이 넓은 포를 착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백제식 귀고리, 목걸이, 팔찌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2) 고증 자료



<그림 26> 왕비의 관식(冠飾)
백제 무령왕릉 출토
- 한국미술전집 2, p. 84.



<그림 27> 포 고구려 쌍영총 고분벽화
- 한국미술전집 4, p. 55.

(가) 금제 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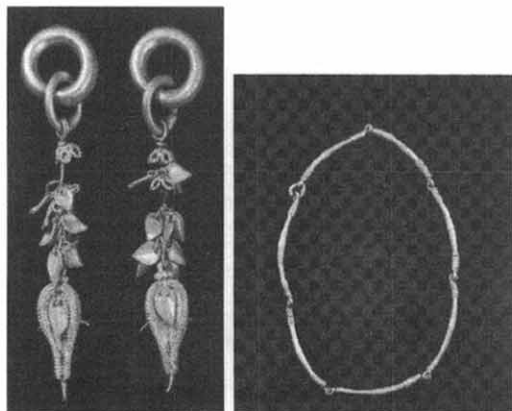
무령왕릉 출토 왕비의 관식(冠飾)<그림 26>은 동일한 모양이 2개 출토되어 변형모 위에 이 관식들을

세운 형태라면 옆면이 사면(斜面)인 변형모 구조상 다른 둥근 테를 따로 덧씌우기 전에는 수직으로 관식들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관모에 부착될 끝 부위가 가운데가 뒤로 약 60° 꺾여 있었고 꺾인 바로 위와 끝 쪽에 작은 구멍이 2개 뚫려 있다고 했는데 이는 변형모의 경우 옆면이 사면이 되므로 부착시킬 경우 관식 자체도 비스듬히 중앙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착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⁵⁰⁾

(나) 포, 과대,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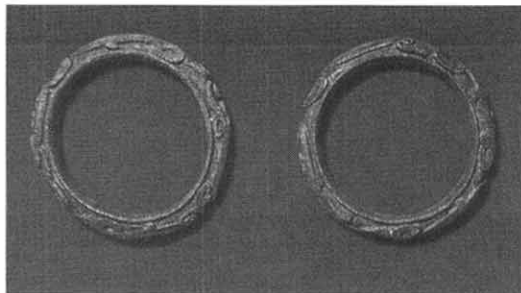
고구려고분벽화<그림 27>를 참조하면, 왕비를 포함한 귀부인들의 포는 소매통이 넓고 발등을 덮는 길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전술한 능산리 고분에서는 여자용으로 추정되는 <그림 16, 17>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진 백동 과대가 출토된 예가 있어⁵¹⁾ 왕비도 이 같은 과대를 포의 위에 착용한 것으로 고증하였다

그리고 <그림 27>에 보면 포에 가려서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으나 단상 아래 화를 따로 그려 밖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화를 착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8> 귀걸이
백제 무령왕릉 출토
- <http://www.heritage.go.kr/>

<그림 29> 목걸이
백제 무령왕릉 출토
- <http://www.heritage.go.kr/>



<그림 30> 은제 팔찌
백제 무령왕릉 출토
- <http://www.cha.go.kr/>

(다) 귀고리, 목걸이, 팔찌

무령왕릉 출토 왕비용 귀고리<그림 28>는 세환식 고리에 보다 작은 고리를 달고 거기에 수식(垂飾)을 단 귀걸이이다. 이 귀걸이는 투작(透作) 금모(金帽)가 씌워진 담녹색 유리옥이 끼워져 있고, 펜촉 같은 수하식에는 각각 오목한 면마다 1개의 엽형(葉形) 영락이 달려 있다.⁵²⁾

무령왕릉 출토 왕비용 목걸이는 9마디로 된 것과 7마디<그림 29>로 된 것 2종류가 있는데, 발굴 당시 7마디 목걸이가 9마디 목걸이 밑에 겹쳐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형태는 활 모양으로 약간 휘어진 육각의 금막대를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하여 고리를 만들고 다른 것과 연결시켰다.⁵³⁾

무령왕릉 왕비의 나무널(목관)내 왼쪽 팔 부근에서 발견된 한 쌍의 은제 팔찌<그림 30>는 팔목이 닿는 안쪽에는 톱니 모양을 촘촘히 새겼고, 둥근 바깥면에는 발이 셋 달린 2마리의 용을 새겼다.⁵⁴⁾

Ⅲ. '서동설화' 등장인물 복식 고증

1. 서동복<고증 1>

서동의 평상복은 머리에 흑건을 쓰고, 유고양식의 허리에는 포백대를 띠고 발에는 화를 신은 것으로 고증하였다. <표 1 참조>

2. 진평왕복<고증 2>

진평왕복은 머리에 수목녹각형 관모를 쓰고, 소매

<표 1>

서동복		
복식	고증	비고
머리, 관모	흑건	-
의복	선을 두른 유와 고	무문선
허리띠	포백대	-
신	화	-

<고증 1> 서동복

<표 2>

진평왕복		
복식	고증	비고
머리, 관모	수목녹각형입식관	-
의복	포	-
허리띠	과대	요패가 달림
신	금동리	-
장신구	귀고리, 목걸이, 반지	밖으로는 귀고리와 목걸이 모습만 표현

<고증 2> 진평왕복

통이 넓은 포를 착용하고, 허리에는 요패가 달린 금제 과대를 착용하고 발에는 금동리를 신었으며, 세환식 귀고리, 금목걸이, 반지를 착용한 것으로 고증하였다. <표 2 참조>

3. 백제 백관복<고증 3>

백제 백관복은 머리에는 변형모 중심판 장식에 삼각형심을 받치고 중심에 은제관식을 꽂은 관모를 착용하고 비색 장유와 바지통이 넓은 밑을 묶지 않은 황색 고를 착용하고 허리에는 은제 과대를 착용하고,


화를 신은 것으로 고증하였다. <표 3 참조>

4. 선화공주복<고증 4>

고신라에 있을 때의 선화공주복은 중심판 조우식을 삼식한 변형모를 착용하고색동치마와 선이 둘러진 유를 착용하고 허리에는 포백대를 하고 있으며, 귀고리 목걸이 팔찌, 반지 등을 착용한 것으로 고증하였다. <표 4 참조>

<표 3>


백관복		
복식	고증	비고
관모	삼각형 모자심에 은제관식	변형모에 삼식
의복	비색 장유, 황고	바지통을 묶지 않음
허리띠	은제 과대	요패가 없음
신	화	-



<고증 3> 백관복

<표 4>

선화공주복		
복식	고증	비고
관모	조우식	변형모에 중심관 조우식
의복	유, 상	부선과 유문선의 유와 색동치마
허리띠	포백대	-
장신구	귀고리, 경홍식, 팔찌, 반지	박으로 귀고리 경홍식만 보임



<고증 4> 선화공주복

5. 서동모복<고증 5>

서동모 평상복은 머리는 없은머리로 하고, 유고복장에 발에는 짚신을 신은 것으로 고증하였다. <표 5 참조>

6. 선화왕비복<고증 6>

백제에서의 선화왕비복은 머리에 변형모에 양옆으로 금화식을 꿰고, 포를 착용하며 귀고리, 목걸이, 팔찌 등을 착용한 것으로 고증하였다. <표 6 참조>

IV. 결론


이상으로 '서동설화'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들의 복식을 설화의 배경이 되는 6-7세기의 유물들을 참고로 하여 고증하였다.

먼저 서동복은 평상복으로 머리에 흑건을 쓰고, 유고양식의 허리에는 포백대를 띠고 발에는 화를 신은 것으로 고증하였다.

진평왕복은 머리에 수목녹각형입식관을 쓰고, 소매통이 넓은 포를 착용하고, 허리에는 요패가 달린 과대를 착용하고 발에는 금동리를 신은 것으로 고증

<표 5>


서동모복		
복식	고증	비고
머리	없은 머리	-
의복	유, 고	유문선
허리띠	포백대	-
신	짚신	-



<고증 5>
서동모복

<표 6>

선화왕비복		
복식	고증	비고
관모	금제 관식	변형모에 양옆으로 금제 관식
의복	포	-
허리띠	과대	-
장신구	귀고리, 7절 목걸이, 팔찌	밖으로 귀고리, 7절 목걸이만 보임.



<고증 6> 선화왕비복

하였으며, 세환식 귀고리, 금 목걸이,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고증하였다.

백제 백관복은 머리에는 변형모 중심판 장식에 삼각형심을 받치고 중심에 은제관식을 꽂은 관모를 착용하고 비색 장유와 바지통이 넓은 밑을 묶지 않은 황색 고를 착용하고 허리에는 은제 과대를 착용하고, 화를 신은 것으로 고증하였다.

고신라에 있을 때의 선화공주복은 중심판 조우식을 삼식한 변형모를 착용하고 색동치마와 부선과 유문선이 둘러진 유를 착용하고 허리에는 포백대를 하고 있으며, 귀고리, 경홍식, 팔찌, 반지 등을 착용한

것으로 고증하였다.

서동모복은 평상복으로 머리는 없은머리로 하고, 유고복장에 발에는 짚신을 신은 것으로 고증하였다.

백제에서의 선화왕비복은 머리에 변형모에 양옆으로 금화식을 꽂고, 과대를 한 포를 착용하며 귀고리, 7절 목걸이, 팔찌 등을 착용한 것으로 고증하였다.

이상으로 주로 등장인물들의 복식을 형태별로 고증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으나 장신구등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어 자료의 제시를 하는 방법을 택했으며, 색이나 직물 등은 자료의 미비나 정확한 고증이 어렵다고 사료되며 특히 직물

등은 현재 재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참고문헌

- 변종형 (2010), 서동설화의 기록화 양상 연구, *배달말*, 47, pp. 3-4.
- 삼국유사 권2 武王 (古本作武康 非也 百濟無武康) 자료검색일 2011. 3. 4. http://gate.dbmedia.co.kr/suwon/korea.asp?url_name=삼국사기삼국유사
- 김기홍 (2010), 서동설화의 역사적 진실, *역사학보*, 205, pp. 184-185.
- 김중진 (2004), 무왕설화의 형성과 서동요의 비평적 해석, *한국문화연구*, 27, 최용수 (1995), 서동설화와 서동요, *배달말*, 20. 김선숙 (2007) 『삼국유사(三國遺事)』 무왕조(武王條)의 서동설화(書童說話)에 대한 검토, *동아시아문화연구* (구 *한국학논집*), 42.
- 김유미 (2007), 여성국극에 나타난 대중 역사극의 한 양상 -〈서동과 공주〉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3.
- SBS 드라마 (2005년 9월 5일~2006년 3월 27일 방송 종료) 총 56부작으로 방영되었음.
- 삼국유사 권2 武王 (古本作武康 非也 百濟無武康) 자료검색일 2011. 3. 4. http://gate.dbmedia.co.kr/suwon/korea.asp?url_name=삼국사기삼국유사
- 朝鮮畫報社出版部 편 (1985), *高句麗古墳壁畫*, 東京: 朝鮮畫報社, 도판 83.
- 리은창 (1978), *한국복식의 역사(고대편)*,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59.
- 자료검색일 2011. 3. 2.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1&VdkVgwKey=11,01880000,37
- 천마총발굴조사보고 (1974), p. 92.
- 이영훈, 신광섭 (2004), *고분미술 II*, 서울: 서울출판사, p. 65.
- 梅原末治 (1924),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十三年朝鮮古蹟調査報告』, pp. 70-72.
- 김문자 (2008), 삼국시대 관모 및 관식 유물 가정을 위한 기준 설정, *복식* 58(5), p. 30.
- 朱榮憲 (1985), "高句麗壁畫古墳の被葬者について", *高句麗古墳壁畫*, 東京: 朝鮮畫報社, p. 31.
- 경주문화재연구소 편 (1993), *皇南大塚(南墳)發掘調査報告書(圖版·圖面)*, 도판 12.
- 천마총발굴조사보고서 (1974), pp. 101-102.
- 경주문화재연구소 편 (1994), *皇南大塚(南墳)發掘調査報告書(本文)*, p. 95.
2011. 2. 17 방송 KBS역사스페셜 "조선시대 남자도 귀고리를 했다!"에서 실제로 무덤에서 나오는 피장자들은 남성들은 세한식을 여성들은 태환식을 착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백제 무령왕릉 왕비용 귀걸이는 세한식으로 되어 있어 삼국시대 남자와용과 여자용 귀걸이 양식의 차이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천마총발굴조사보고서 (1974), p. 97.
- 경주문화재연구소 편 (1994), *op. cit.*, p. 78.
- Ibid.*, p. 87.
- 三國史記 卷 第三十三 雜志 第二 色服條
- 周書 卷四十九 傳列 第四十一 異域上 百濟, 泰率六品, 六品已上, 冠飾銀華.
- 舊唐書 一百四十九上 列傳 一百四十九上 東夷 百濟 其王服大袖紫袍, 青錦袴, 烏羅冠, 金花爲飾, 素皮帶, 烏革履, 官人盡緋爲衣, 銀花飾冠, 庶人不得衣 緋紫
- 官位와 官職은 엄밀히 구분되는데 관위는 등급이며 관직은 직책이다. 그런데 백제의 관위는 동시대 고려, 신라와는 좀 다른 대목이 있으니 관위와 관등의 구별이 모호할 때가 아주 많다. 예컨대 좌평은 1등급이라는 관위를 가리키면서도 그런 직책을 말하기도 한다.
- 三國史記 卷 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古爾王 二十七年條, 二十八年條, 二十七年, 春正月, 二月, 下令六品已上服紫, 以銀花飾冠, 十一品已上服緋, 十六品已上服青 二十八年, 春正月初吉, 王服紫大袖袍·青錦袴·金花飾烏羅冠·素皮帶·烏韋(革)履, 坐南堂聽事.
- 김문자 (2002), 백제관식에 대한 연구, *한복문화*, 5(2), pp. 22-23.
- 『양직공도』는 남북조시대 한족이 세운 남조의 하나인 梁(502~556)의 元帝(552~554) 재위기간에 각국에서 조공하러 온 사신의 모습을 태수이던 蕭繹(505~554)이 그린 것이다. 이진민, 남윤자, 조우현 (2001),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에 묘사된 三國使臣의 服飾 研究, *복식*, 51(3), pp. 156-157.
- 서미영 (2006), 백제공복에 관한 연구, *복식*, 56(8), p. 63.
- 李弘植 (1965), 梁職貢圖論考"-특히 百濟國 使臣 圖經을 中心으로, *고대창립 60주년기념논문집*, pp. 295-325.
- 崔孟植 (1998), 陵山里 백제고분 출토 裝飾具에 관한 一考, *백제문화*, 27, p. 160.
- Ibid.*
- Ibid.*, p. 159.
- 서미영, *op. cit.*, p. 69.
- 자료검색일 2011. 4. 1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85219&logNo=110100725350>
- 서미영, *op. cit.*, p. 65.
- 국립부여박물관 (2005), *백제인과 복식*, 부여: 국립부여박물관, pp. 153-154.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편 (1985), *皇南大塚 I (北墳)發掘調査報告書*, p. 77.
- 김문자 (2008), *op. cit.*, p. 21.
- 유희경, 김문자 (2004),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35.
- 이한상 (2004), *황금의 나라 신라*, 서울: 김영사, pp. 173-174.
- 자료검색일 2011. 3. 4.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VdkVgwKey=11,00900000,11
- 천마총발굴조사보고, *op. cit.*, pp. 98-99.

- 45) 이한상, *op. cit.*, p. 33.
- 46) 자료검색일 2011. 5. 3.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NS_04_03_02&VdkVgwKey=12,04540000,11
- 47) *Ibid.*
- 48) 유희경, 김문자, *op. cit.*, p. 96.
- 49) 국립부여박물관, *op. cit.*, p. 95.
- 50) 김문자 (2008), *op. cit.*, p. 25.
- 51) 국립부여박물관, *op. cit.*, p. 124.
- 52) 자료검색일 2011. 5. 4. http://www.heritage.go.kr/culture_2008/kor/search/pop_search_view.jsp?pk=PS01001004001000635000AE
- 53) 자료검색일 2011. 5. 5.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VdkVgwKey=11,01580000,34&mc=KS_01_02_01
- 54) '은제 팔찌', 자료검색일 2011. 6. 2.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Directory_Image.jsp?VdkVgwKey=11,01600000,34&imgfname=a0160000034003.jpg&dirname=national_treasure&photoname=은제팔찌\(왕비\)](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Directory_Image.jsp?VdkVgwKey=11,01600000,34&imgfname=a0160000034003.jpg&dirname=national_treasure&photoname=은제팔찌(왕비))